

한국 문학의 세계화와 번역의 문제: 시조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박진임
(평택대)

민족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국경을 넓히고 고유의 문학을 창조하는 것이다. 물리적 국경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국경도 넓혀야 하는 것이다.

A nation in order to become a nation needs two things: to extend its boundaries and to create its own literature... It has to extend not only its physical but also its mental boundaries

—이아니스 시하리스 Yianis Psiharis¹⁾

1. 서론: 번역과 한국문학

최근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핵심어로 부상하고 있다. 통신과 운송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세계가 빠르게 하나의 마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경계는 점점 더 무의미한 것으

1) Gregory Jusdanis, 46면에서 재인용.

로 변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은 약화되고 국가간의 공조와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의 문화교류도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가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번역의 중요성 또한 더욱 부각되고 있다. 번역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치환하는 것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문학작품의 번역은 개별 작품에 사용된 언어가 내포하는 문화적, 이념적 특수성까지 번역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번역이 될 수 없다. 최근 한국문학계에서는 한국 문학이 자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문학 시장에서도 동시에 소비되고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기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이를 증명한다.²⁾

문학 작품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번역의 대상이 되는 원 텍스트가 생산된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학계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³⁾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원 텍스트가 배경으로 삼는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문화의 포괄적인 번역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번역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 논의를 연장하고자 한다. 번역에 있어서는 원본의 축자적, 문화적 이해 못지않게 원본이 갖는 구조적, 미학적 성격등과 같은 텍스트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여 보이하고자 한다.

-
- 2) 한국 문학 연구의 장에서는 최근 10여년 사이에 재외 동포 문학을 한국 문학의 장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계 미국 작가나 중국, 러시아 동포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이산 문학이 대체로 외국어로 창작되었고 따라서 번역 텍스트를 매개로 해서만 연구가 가능한 까닭에 번역의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창작의 매개체로서의 언어와 문학의 국적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박진임,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모델에서 다문화적 통찰의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문학, 그 시작에서 오늘까지」(『대산 문화』, 2005 겨울호, 96-99면)를 참조할 것.
 - 3) 문학 작품의 번역에 있어서 문화 이해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박진임, 「문학 번역과 문화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번역학 연구』, 제5권 1호, 97~111면)를 참조할 것.

본 연구는 그 범위를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시가의 고유한 형식이라고 불리는 시조의 번역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시조의 형식은 다른 세계 문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것이므로 번역되어 세계에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그 밖에도 한국 고유의 문학 형식을 고찰하고 그 고유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번역 방향을 점검함으로써 다른 문학 장르의 번역에 있어서도 활용 가능한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좋은 번역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임을 제시할 것이다. 즉 원전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전제될 때 바람직한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역으로 외국어문학의 한국어 번역에도 물론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원전의 문화적,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원전 자체의 내적 형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수용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번역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명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에 대한 점검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후속 번역자들은 이전의 번역자들의 공과에 힘입어 보다 나은 번역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인간 문화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듯이, 번역 또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a dwarf on a giant's shoulder) 없이는 도로에 그칠 뿐이다.

노벨 문학상이 초기의 유럽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점점 더 전지구인의 다양한 삶의 재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 남미, 중국의 작가 등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국적의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은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적 발전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화의 영역에서는 노벨문학상으로 대표되는 세계 무대への 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한국적인 기준을 지양하고 지역적 편협성을 넘어 세계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었다.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것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인이 공감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한국 문학이 세계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번역이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다. 번역은 최근 10여 년 내에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 왔

다. 그러나 잘된 번역의 예를 찾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산문, 즉 소설의 번역은 즐거리가 있고 사건이 있어 다소 잘 된 번역의 텍스트를 찾기가 쉬운 형편이지만 시문학의 경우는 그 장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잘된 번역 텍스트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바람직한 번역은 나이더와 태이버의 정의에 따른 동적인(dynamic) 번역, 반웰이 주장하는 정확성, 명확성과 자연스러움을 갖춘 번역, 그리고 풀러가 지적한 대로 의미, 형태, 기분, 문체 등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번역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독자의 문제에 관한 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번역 텍스트는 대체로 한국어와 깊은 접촉을 해보지 않은 영어권 사람들을 가상 독자로 삼는다. 따라서 번역 텍스트의 독자 중에서 한국 문화에 친숙한 사람들이나 한국 문학 연구자들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독자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텍스트가 한국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한국 문화에 노출된 적이 거의 없는 가상 독자들에게 얼마나 용이하고도 영향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번역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것이다.

2. 시조 번역의 문제

한국 문학의 번역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시조를 논의의 중심에 놓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시조가 민족문학의 요체에 해당하며 민족문학은 민족의 형성과 지속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까닭이다. 그레고리 쥬스다니스(Gregory Jusdanis)는 그리스의 근대를 민족 문학의 역사를 통하여 탐구한 바 있다. 쥬스다니스가 강조하는 것은 민족의 성립에는 민족 문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문화가 서구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의 고유한 민족 문학이 전승되었던 까닭이라고 그는 본다. 그리스 문학의 경우는 한국 문학에 비추어 볼 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민족어로 구성된 민족 문학이 소멸할 때 민족의 고유성 또한 함께 소멸하는 까닭에 민족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어와 민족 문학의 계승과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⁴⁾

4) 노튼(Charles Eliot Norton) 이 언급한 문학의 중요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이다. 노튼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 고유의 문학 양식인 시조의 미학을 확인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따라서 민족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 고유 문화의 수호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박철회는 우리 민족의 경우 시조가 민족의 ‘자기 동일성’을 담보하는 문학양식이라고 본다. “한국 시가사상 오직 시조의 형식만이 시형으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시조의 형식이 한국 시가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일관하는 종족적 동일성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민족과 민족문학의 관련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시조 번역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유성호는 ‘문학 세계화, 시조에 길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시조옹호론을 제기한 바 있다. 서구인들의 상당수가 한국의 시 양식 중 시조에 관심이 많다는 것과 시조는 견고한 생명력과 강한 자기 갱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조 옹호론의 이유로 들었다(유성호 146.) 시조가 갖고 있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시형식이 세계 문학의 장에서 갖는 의미는 일본의 하이쿠가 세계 문학에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비해보면 알 수 있다.

자유시와 시조를 비교해 볼 때 시조가 한국적 고유성이라면 자유시는 ‘보편성’이라는 이름에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보편성이란 ‘서구 중심의 서구 보편성’에 다름 아니다. 세계가 급격하게 전지구화의 길에 들어섬에 따라 주목되는 것은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 동일성이 아닌 차이이다. 문학의 경우에도 새로운 창조성의 원천은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간주되어 온 지역 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들뢰즈의 주장처럼 문학의 새로운 생명력은 소수 문학(minor literature)에만 남아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⁵⁾

문학 유산을 저버린 민족은 야만적이 되며 문학 창조를 중단한 민족은 사유와 지각을 멈추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는 민족의 언어 사용에서 생명력을 취하며 역으로 그 민족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본다. 시는 민족의식의 최고점이며 민족 최강의 힘이며 가장 민감한 지각력이라는 것이다. "The people which ceases to care for its literary inheritance becomes barbaric; the people which ceases to produce literature ceases to move in thought and sensibility. The poetry of a people takes its life from the people's speech and in turn gives life to it; and represents its highest point of consciousness, its greatest power and its most delicate sensibility." 엘리엇(T.S. Eliot) 이승근역, 『시의 효용과 비평의 효용』 학문사. 1981. 15면에서 재인용.

5) 소설가 박상룡은 소수 언어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양의 12음계로는 만들 수

이제 영어권 독자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시조 텍스트에 한정하여 시조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시조는 간결하고 정제된 문학 양식이며 서경과 서정의 결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번역 텍스트에서도 원 텍스트의 미학이 상당히 많이 유지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간결한 형식 자체가 번역을 용이하게 할뿐더러 그 형식 속에 전개되는 풍부한 이미지와 의미 또한 용이하게 번역될 때가 많다. 고시조의 경우 이 점은 확연하게 드러나며 현대 시조의 경우에도 고시조 못지않게 번역을 통해서도 원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데 이는 번역의 과정이 대체로 원작의 왜곡을 결과할 수 있음을 이른 것이고 더구나 시는 번역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해진다. 시는 옥타비오 빠즈의 말처럼 언어를 도구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봉사하는 특별한 언어 사용의 경우이기 때문이다.⁶⁾ 그러나 시조의 경우, 선명한 상징성과 간결한 전언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번역의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시조 중에서도 현대 시조보다는 고시조에서 상징과 전언의 선명성과 간결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는 영역된 텍스트를 통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시조의 구성과 특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글자 수는 그대로 번역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자수율이 번역과정에서 무시된 이후에도 시조의 리듬은 그대로 남게 되는데 그것은 음보울 덕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휴지와 끊어 읽기로 담보되는 4 음보 율은 번역 텍스트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⁷⁾ 리듬이 주는 쾌감에 대해서는 많은

있는 모든 멜로디가 이미 다 만들어져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멜로디를 지어낼 수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학에 있어서도 소수 언어, 소수 문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6) “우리가 언어를 이용할 때마다 우리는 언어를 훼손시킨다. 그러나 시인은 말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는 말에게 봉사하는 자이다. 말에 봉사함으로써 말에게 말의 충만한 본성을 되돌려주며 말이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게 한다. 시 덕분에 언어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유에 의해서 손상된 조형적이고 음성적인 가치를 회복하게 되며 이어서 정감적인 가치를, 마지막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가치를 회복한다. 언어를 순화하는 것은 시인의 과제이며 이것은 언어에게 원래의 본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한다.” (Octavio Paz, 59 면)
- 7) ‘음보’라는 용어가 등시적 분할과 반복을 의미하는 영미시의 foot 개념을 번역한 것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거니와 시조는 원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 모두에서 고유
의 리듬을 손상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시상이 선명하고 전언이 간결한 고시조의 경우 이 점은 가장 분명히 드러
난다. 고시조의 경우 대개 자연 현상에서 소재를 취하고 충, 효등의 유교적인
덕목을 주제로 삼거나 자연회귀나 천명에의 순종 등 초절 적이고 도가적인 사
상을 중심으로 한다. 시조의 영어 번역자중 이네즈 배(Inez Kong Pai), 리차드
럿트(Richard Rutt), 데이비드 맥켄(David MacCann)의 경우 시조의 4음보율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번역 텍스트는 시조가 3장 6구의 형
식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준다. 왕방연의 시조, 「병가」를 번역한 리차드
럿트의 경우를 보자.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훈 님 여희압고
내 마음 들디 없어 냇가에 안잣시니
저 물도 내 안과 갓퇴여 우리 밤길 예눗다.

Ten thousand li along the road
I bade farewell to my fair young lady.
My heart can find no rest
as I sat beside a stream.
That water is like my soul:
it goes sighing into the night. (Rutt 27)

임종찬은 이 번역 텍스트를 두고 원 텍스트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이며 한국시가에 적용할 때는 적절하지 못한 개념임은 오세영, 조창환등이 밝힌 바와
같다. 조창환은 ‘음보’ 대신에 ‘울 마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논자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기존의 한국 시가 연구에서 ‘음보’ 라는 용어가 이미 광범하게 씌
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편의상 ‘음보’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조창환의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 시가의 경우 음보를 분단하는 경계표지의 자질은 쉽게 의한 것
말고는 달리 특별한 변별적 특성의 요소를 찾을 수 없다. 즉 영시 같은 경우에는 강
약의 되풀이가 이루는 규칙적 반복이 실러블의 간격을 확실히 함으로써 한 율행이
몇 음보인가가 분명해지나 우리와 같은 단순 율격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적 요소가
없으므로 breath group사이의 쉼과 연결에 따른 경계 구분만이 의미있는 요소일 뿐이
다.” 조창환, 『한국현대시의 운율론 적 연구』, 일지사, 1986. 28면.

한다. “한 장을 두 구로 나눌 때 나누는 것이 통사적으로도 자연스럽고 각 구의 음절수 또한 서로 알맞게 안배되어서 의미상으로 장과 구를 구별하였음은 물론 각 구를 읽을 때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도록 음절 수를 조절해놓은 것이 특이하다.”(임종찬 44) 즉 의미에 따른 구와 장의 구별, 이를 수반하는 적절한 휴지 표기, 그리고 음절 수의 조절등을 통해 시조의 고유한 형식 또한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유지된다는 것이다.⁸⁾ 리트 등의 번역은 번역의 과정에서 시조 고유의 리듬 전달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타의 번역들과 비교해볼 때 돋보인다. 4음보에 유의한 번역의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화우 흠뻑릴제 부여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계량)

I bade him farewell,
in the pear blossom shower
Would he be thinking of me
as leaves fall in autumn winds?
Wandering is my lone dream
over one thousand li. (졸역)

위에 든 고시조의 경우만이 아니라 현대시조 또한 4음보 울격을 유지하면서 번역할 수 있는 텍스트도 많이 있다. 다음은 그 한 예이다.

The sound of flowing water:
Soft words between lovers at night
In my narrow alleyway,
Colored with faded yearning
I hear your voice,
In the water drenching the night

8) 임종찬은 영어의 경우 휴지 표기에 있어 세미 콜론(sem- colon) 등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Unlike the quiet fathoms of water,
My heart is ever trembling
How long till I wear it out,
Until I forget the pebble thrown at my heart?
Through closed eyes I can hear you,
Weeping in my backyard

Scattering petals behind,
You turned away from me.
My heart remains yet unquenched,
Since you stopped digging the well.
It repeats your sweet words,
Every returning season.

The sound ceases once in a while,
As if I have now forgotten you.
Yet it sneaks back into my pillows on restless nights,
And unreels the thread again.
The sound of flowing water:
The song of my endearment. (박재두 「물소리」⁹⁾)

9) 세계 시조 사랑 협회간, 『시조월드 13호』(2006. 하반기) 186~187면. 수록된 원전은 다음과 같다.

밤내 도란거리는 여울소리 스며들어
그리움 어룽져 앓은 나의 좁은 골목에도
어리는 그대 목소리, 밤을 젖는 물소리

갈앉은 물속 같이는 못 배기는 마음 바닥
얼마나 닳아 잊히랴 굴러 온 자갈 한 일
감으면 그대 목소리, 뒤 안에 숨어 우는...

꽃잎 찌 흘으며 발길 돌린 머인 사람
가슴 속 깊은 골짜기 샘 하나 파다가 두어
침마다 끊이지 않고 하던 말을 되 뇌인다.

위에 든 번역 텍스트는 현대 시조의 번역이지만 선명한 시상과 4음보의 가락을 잘 이용한 음악성이 쉽게 파악되어 균등 4음보의 3장 6구 번역을 가능하게 해 주는 텍스트이다. 시조의 리듬감을 살리는 번역의 미덕은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4음보 율격을 유지하는 또 다른 현대시조의 번역 예를 살펴보자.

내 오늘은 서울에 와
만평 적막을 사다.

안개처럼
가랑비처럼
홀고 뿌릴까보다.

바다 난
호주머니엔
주고 간 빗의 명함. (서벌 「서울」)

I buy solitude in Seoul
of ten thousand Pyeong, today.

Shall I scatter it away
like this fog, like this misty rain?

Left alone in my worn out pocket
is the name card my friend gave me. (졸역)

한 나절은 숲 속에서
새 울음소리를 듣고

만나절은 바닷가에서
해조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다간 잊고 지내듯 물소리 끊기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은 베개 밑에 스며들어
못다 푼 실꾸리 푸는 여울소리, 내 소리.

언제쯤 내 울음소리를
내가 듣게 되겠습니까. (조오현 山日 3, 김학성 118~119)

One day, in a forest,
I heard birds singing.

Another day, at a seashore,
I heard waves rushing.

When can I hear
myself weeping? (졸역)

그밖에도 4음보율격에 맞게 시조를 번역한 예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4음보 율에 따른 번역으로 시조 번역의 규범이 정리될 수는 없다. 이러한 번역은 시조가 균등 4음보의 3장 6구 형식이라는 기존의 시조론을 잘 설명하지만 이능우, 조창환, 성기옥, 김학성 등이 제기한 바, 불균등 4음보론, 즉 초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시조 형식은 이러한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하여 더욱 정밀한 시 형식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보는 논의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시조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 위의 논자들 중 김학성의 주장을 인용해 보자.

잘 알다시피 시조의 율격적 틀짜기는 초장과 중장을 똑같이 4음 4보격으로 반복하여, 반복의 미감을 단 한 차례 즐긴다. 그리고 이어서 종장에는 이러한 반복의 미감을 따르지 않고 변화를 주어 변형 4음보격 (첫음보를 3음절의 소음보로 고정하고 둘째음보는 5음절이상의 과음보로 직조함을 의미)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초-중장의 반복구조를 벗어나 전환의 미감을 즐긴다. 이렇게 시조의 3장 구조는 반복-전환의 미적구조를 최대한 살리는 3장의 완결구조로 이루어져 있다.¹⁰⁾

10) 김학성, 「시조의 3장 구조와 미학적 지향」, 『한국 시조시학』 창간호. 고요아침, 2006. 118~119면. 김학성은 반복과 전환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성기옥에 빗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이들 논자들의 논의가 더 근원적으로는 조운제의 한국 시가 전반의 특징 파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힌다. 즉 조운제가 우리 시가의 형식적 원리를 전대질-

위에 보인 번역 텍스트들의 원 텍스트들에서는 종장이 파격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는 초장과 중장의 리듬을 유사하게 반복한다. 그러나 종장이 초중장과는 급격히 다른 파격적 성격을 띠게 되는 시조 텍스트 또한 많이 있다.

종장의 파격적 성격을 간과하고 그 파격성을 전달하고자 파격적인 시행으로 종장을 번역한 경우, 이러한 번역이 실패한 번역, 또는 미달의 번역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종장은 시조 형식 내부의 이질적 성격의 장임을 인정할 때에는 번역 텍스트에서 보이는 종장의 불규칙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을 때 음절과 호흡 등의 면에서 균등한 안배의 규칙을 종장에서 일탈하는 번역이 오히려 적절한 시조의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시조 중 성훈의 다음 시조는 시조 종장의 이러한 파격적 특질을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말업슨 청산이오, 태업슨 유쉬로다.
갑 업슨 청풍이오, 임자 업슨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업슨 이 몸이 분별 업시 늙으리라. (김천택 96)

‘청산’, ‘유수’, ‘청풍’, ‘명월’의 4가지 자연 현상에서 소재를 취하여 서경을 전개한 다음 종장에 이르러서는 서정으로 전환하여 자아를 그 자연 속에 투사하

후소절의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하며 이를 한국시의 이념적 형식으로까지 지목한 점을 밝힌 것이다. 시조의 경우, 초·중장은 전대절을, 종장은 후소절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김학성은 이러한 ‘반복과 전환’의 구조들을 대입하여 현대 시조 작품 개별 텍스트를 설명하는데 논자는 그 중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반복’의 항목에서는 입장을 달리한다. 김학성이 예로 든 텍스트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여 많은 현대 시조 텍스트의 초, 중장의 성격은 반복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입과 전개’ ‘발상과 연역’ 또는 ‘발화와 변주’로 보아야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김학성이 예로 든 텍스트 중 특히 이우걸의 ‘팽이’, 조오현의 ‘산일3’, 홍성란의 ‘애기매꽃’이 그러하다.

논자와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김학성의 주장은 시조의 구성미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시와 하이쿠의 특징과 대비하여 시조가 종장에서 보여주는 일탈의 성격에서 시조의 특성을 찾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하여 그는 시조의 주된 미학을 ‘비 주신행적 주신행의 시’, ‘무질서 속의 질서, 비 균제 속의 균제, 무기교 속의 기교’에서 찾는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은상의 양장시조 실험을 비롯한 유사 시조의 보기들을 적절한 시조의 반례로 제시한 점은 앞으로의 시조 논의에서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고 동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노래한 시이다. 다음은 이를 영역한 경우이다.

speechless is the green mountain
 shapeless is the running river,
 priceless is the fresh wind
 ownerless is the bright moon.
 disease-less and mind-less in all these
 do I hope to grow old. (졸역)

번역 텍스트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종장이다. 시조의 종장은 그 내용의 면에서도 초장과 중장과는 분리되는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종장에 이르면 주어는 일반 명사 mountain, river, wind, moon으로부터 인칭대명사 I로 전환된다. 서경에서 서정으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변화보다도 더욱 현저한 차이는 ‘명사 1+less+is +정관사 the+형용사+ 명사 2’로 동일하게 반복되던 구조가 종장에 이르면 깨어져 버린다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종장에서 보이는 이러한 이탈과 파격은 선행하는 초중장의 리듬으로부터의 이탈이며 휘모리 장단의 특질에 대비될 수 있는 파격적 성격을 지닌다. 종장에서는 less 어휘가 중첩되어 초중장의 구조를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도 길이나 문장 구조에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상의 파격이 종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시조의 특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조의 번역에 있어서 러트 등의 번역에서 보이듯 균등 4음보의 3장 6구 번역본만이 시조의 리듬에 맞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장의 2구에서 불균등한 음보가 출현하거나 반복적인 율격이 완전히 파기된 듯이 번역된 경우에도 그것을 수준 미달의 번역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텍스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 더욱 충실한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케빈 오록(Levin O'Rourke)의 경우, 시조의 종장이 시조 형식 내에서 갖는 특수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번역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오록은 다른 역자들과는 달리 5행으로 시조를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즉 초장은 2행으로, 중장은 1행으로 번역한 다음, 종장의 첫 3음절에 1행

을 할애하고 나머지 5.4.3음절을 다시 한 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색의 시조, ‘백설이 잦아진 골에’를 번역한 다음의 예가 대표적이다.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흐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니 곳디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김하명 37)

Clouds cluster thick
where white snow melts in the valley.
The lovely plum, where has it bloomed?
I stand alone
in the setting sun, not knowing whither I should go. (O'Rourke 53)¹¹⁾

오록의 이러한 번역은 김대행의 시조 형식 분석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3장 6구 4음보 번역의 정형을 벗어나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 또한 오록의 경우, 중장을 초장과는 달리 한 행으로 처리함으로써 김학성의 주장처럼 중장은 초장의 반복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 번 논자의 입장은 중장을 반복으로 보기보다는 전개와 심화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초장과 중장은 균등하게 4음보로 번역되고 또한 각각 2행씩으로 번역되었을 때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더 잘 드러내 준다고 본다.

고시조의 경우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간단하고도 명

-
- 11) 5행시로 번역한 다른 시조 작품들의 예는 Kevin O'Rourke, *Mirrored Minds: A Thousand Years of Korean Verse* (Seoul: Eastward)를 참조할 것.
- 12) 오록의 번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대행의 주장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김대행은 “우리나라의 시가는 대체로 무한정 길어질 수 있는 연첩 율 율 그 특징으로 하는데 시조가 3장에서 완결되는 형식이라면 그 3장이 어떻게 해서 종결되고 있는가?”(220)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시조 텍스트의 예를 들어가며 시조의 중장이 4보격이라기 보다는 5보격 정도로 길이가 길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223) 그리하여 중장을 율독 하는 3가지 방법적 가설을 제시한다. 즉, 첫째는 중장의 첫 3음절을 따로 읽고 나머지를 4보격으로 읽어 처리하는 것, 둘째, 시조창의 경우에 보이는 것처럼 맨 마지막의 3음절을 별도 처리하는 법, 그리고 셋째로 중장의 둘째 마디를 5음절이든 7음절이든 음절수에 상관없이 늘여 읽으며 4음보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오록의 경우는 첫째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한 정서나 사상을 단시조의 4음보로 노래하였기 때문에 위에 보인 것처럼 형식과 내용을 모두 번역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현대시조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고시조와 달라진 까닭에 번역에 있어서도 또한 고시조의 경우와는 다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현대시조의 경우에는 형식의 양보 없이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대 시조는 자유시의 속성과 고시조의 형식적 유산이 고도의 기술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박철휘의 지적을 상기해보자. 박철휘는 유기적 형식으로서 성공하는 현대시조에 대해서 “정형이면서 자유시형이고 자유시형이면서 정형”이라고 했다.(박철휘, 156) 이는 현대 시조가 형식의 면에서는 시조 고유의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의 면에서는 자유시가 구사하는 이미지와 사상, 경험의 고유성과 표현의 창조성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한국의 현대 시조 시인들의 성취는 바로 시조의 형식을 크게 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보다 탄력성 있게 이를 받아들이면서 자유시가 갖는 이미지, 상징성,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와 사상을 함께 그 형식 속에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대 시조의 번역에 있어서 시조 형식 번역, 즉 음보율의 번역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보다 내용에 더욱 충실하여 자유시를 번역하듯이 하여 음보의 번역은 포기하고 이미지와 상징, 서정과 사상의 번역에 치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논자는 현대시조의 번역은 자유시 번역의 형식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현대시조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바, ‘현대’와 ‘시조’라는 두 명사의 결합에서 현대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시의 번역이라고 해도 그것이 산문의 번역과는 구별되는 리듬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시조인 까닭에 가능한 한 4음보의 리듬감에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듬감을 위하여 텍스트 내부의 서정과 사상, 상징성 등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번역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번역의 경우를 들어가며 더욱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음보에 맞추어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일탈을 의도하여 원작에 더욱 충실한 번역을 시도한 예로 다음을 살펴보자.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월 아지랑이

장다리
노오란 텃밭에
나비
나비
나비
나비 (이영도 아지랑이,)

When your breath
is warm on my forehead
like your gentle caress,

my love is the spring shimmer,
the shimmer in March.

All yellow,
in the blooming radish garden,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butterfly (졸역)

위의 번역에서는 1연을 2행이 아닌 3행으로 번역하였다. 4음보 율에 맞추기 위해서는 도입 부분의 ‘어루만지듯’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의미를 축소시켜 번역해주어야 한다. 삭제를 한다면 “when your breath is warm on my forehead”라고 하여 ‘어루만지듯’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된다. 아니면 “when your caressing breath is warm on my forehead”라고 번역함으로써 ‘어루만지는 듯한’의 의미를 유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caressing breath’는 원문의

뜻과는 거리를 둔 표현이 될 것이다. 원작에서 ‘당신의 숨결’로 표현되는 님의 존재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아지랑이’로 탄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것은 단지 소극적인 님의 숨결만의 작용이 아니라 ‘어루만지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나듯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매개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장에서도 원문의 ‘장다리/ 노오란 텃밭에’에서 ‘노오란’을 강조하기 위하여 ‘노오란’과 ‘장다리’를 도치시키며 ‘노오란’을 ‘all yellow’라는 한 행으로 처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원작자의 의도가 ‘주제의 시각화’에 있고 그 매개체로서 ‘숨결, 아지랑이, 장다리 꽃, 나비’의 은유를 사용하였음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하여 균등 4음보의 병렬 배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음악성은 약화되었지만 시각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의도하였다. 그렇다고 시조의 음보 율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다소 변화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4음보의 흔적이 이루어내는 내재적인 리듬감은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대시조 중에서도 단순한 이미지와 간결 명료 한 감정이나 사유의 직접 토로를 보여주는 텍스트도 다수 있으며 이는 고시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음보를 살리면서 번역될 수 있다. 또는 리듬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요한 다른 시적 구성 요소를 희생하고 번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김기태 어린이의 시조는 시조의 음보 율을 주제로 삼은 메타 시조이다. 그런 까닭에 음보를 살리는 번역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삼사로 반복해서 네 걸음 다가가고
또다시 방향 바꿔 징검다리 쿵짝 쿵짝
종장은 조심해야 돼, 물에 빠지기 쉬우니. (김기태 시조)

three four three four, four steps at three four
another three four, turn around and three four
Watch out the last line, not to fall into the stream. (졸역)

음보를 살려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방향 바꿔 징검다리 쿵짝 쿵짝’ 구절 중 ‘쿵짝쿵짝’이라는 요긴한 의성어를 생략할 수밖에 없다. 음보를 위해 이미지, 음향 효과 등의 다른 구성 요소를 희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지와 상징 등이 음보율의 음악성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텍

스트의 경우, 그 번역 텍스트는 자유시의 번역에 더욱 가깝게 음보보다는 내재적 리듬을 따라 이미지와 상징 중심으로 번역되었을 때 더욱 적절한 번역텍스트가 될 것이다. 또한 전언을 강조하는 서사적 성격의 시조인 경우 또한 음악성을 위하여 음보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소 산문화하는 경향을 보일지라도 전언을 충실히 번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당수의 사실시조, 또는 성격상 역사성, 저항성, 사회 참여성 등이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시조 또한 전언에 충실한 번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서사성이 강한 시는 반드시 율격을 버리고 산문 번역에 준하게 번역하라는 것은 아니다. 율격을 유지하면서도 서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번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양자가 제로섬(zero sum) 상태에 놓여 있어 율격에 충실하면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해지고 내용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하면 율격의 번역이 희생되기 쉬운 경우라면 텍스트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요소에 치중하는 번역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일 따름이다.

V. 결론

이상에서 시조의 형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바탕을 두고 시조의 영어 번역을 재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번역 방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시조의 요체는 4음보 3장 6구의 형식에 있고 그 3장 6구중에서도 종장은 시조 형식 내부의 이질적인 요소임에 주목하여 시조의 기본 4음보 격은 다만 시조의 가락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기능해야지 그것이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종장을 중심으로 하는 파격과 규율 이탈은 폭넓게 수용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현대시조는 고시조의 4음보 율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더욱 다양한 파격과 변주를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고 고시조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지나 전언의 역할이 현대시조에서 더욱 중요해짐을 또한 살펴보았다. 현대 시조는 이전에 창으로 불리었던 고시조의 음악성을 리듬의 측면에서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현대시에서 강조되는 이미지와 메타포 또한 주요한 구성 요소로 삼아 고시조의 전통성과 현대시의 새로움을 구비할 때 성공적일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문학이론가 낸시 비커스(Nancy Vickers)는 비디오 시대의 서정시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서정시는 어디에서든 우리를 따라다닌다. 서정시는 도저히 가라 앉힐 수 없이 만연한 담론의 장을 형성한다.”(Vickers, 6) 벤야민이 지적한대로 아우라(aura)가 사라진 대량복제의 시대에 사는 동안에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날 수 없는 문학 장르는 바로 서정시(lyric)이다. 서정시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리라(lyre)가 악기의 하나이듯이 시의 음악성, 음악성을 지닌 시는 기술이 서정을 현저하게 압도한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변을 떠돌 것이다. 비커스가 이른 바대로 그 ‘어찌할 수 없는 만연성(unsettling ubiquity)’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서정시는 인류와 함께 할 것이다. 대중가요의 가사로, 자장가의 가사로, 짧은 전자 메일의 인용문 속에, 보다 세련된 담화의 일부분으로 서정시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만연한 서정시 중에서도 한국어의 고유한 리듬을 잘 간직한 시조는 앞으로도 오랜 생명력을 지니고 창작되고 향수될 것이다.

외국어를 모르면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괴테의 말과 같이 비교의 기준으로서 타인과 타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국제화와 정보화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타인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번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문학 번역에 있어서 문학 텍스트의 단순 번역은 진정한 타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문학 번역은 그 문학을 탄생시킨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 문화 자체의 번역으로 연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언어학, 지역학, 번역 학, 문화인류학, 비교 문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발달은 이러한 문화 번역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문의 발달에 힘입어 문화 번역을 아우르는 문학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국제적인 문학 교류와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짐과 동시에 세계 문학계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온 한국 문학 작품의 보급은 활성화될 것이다.

시조 장르에 관한 한 현대 시조단과 학계가 힘을 합하여 좋은 시조를 찾아내고 시조 창작과 비평을 통한 보급과 교육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조는 리듬이라는 음악성과 자유시의 상징, 메타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까닭에 번역을 통해서도 그 미학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독특한 장르이다. 시조의 유기적 형식과 간결성, 그리고 한국 고유의 시가 형식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번역을 통한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에서도 시조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세계 시조 사랑 협회 간, 『시조월드』 서울: 문학과 청년사.
태학사 간,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2) 단행본

- 김대행. 1976. 『한국 시가구조연구』. 서울: 삼영사.
김천택 편. 홍문표, 강중탁역주. 1995. 『청구영언』. 서울: 명지대학교출판부.
김하명. 1985. 『해외우리문학연구총서 83, 시조집』. 서울: 한국문화사.
박철휘. 1997. 『한국시사연구』. 서울: 일조각.
유영난. 1995.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이승근 역. 1981. T.S. Eliot, 『시의 효용과 비평의 효용』. 서울: 학문사.
조창환. 1986. 『한국현대시의 운율론적 연구』. 서울: 일지사.
정병욱. 1993. 『한국고전시가론』. 서울: 신구문화사.
파쯔, 옥타비오. 2001. 『활과 리라』 서울: 숲.
Beekman, John and John Callow, 1974.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Callow, Kathleen. 1974. *Discourse Considerations in Translating the Word of God*.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Fuller, Frederick. 1984. *The Translator's Handbook*. The Pennsylvania State UP.
Guenther F. and M Guenther-Reutter, eds. 1978. *Meaning and Translation*. London: GERALD Duckworth and Co..
Johnson, Barbara. 1985. "Taking Fidelity Philosophically" In Joseph Graham ed. *Differences in Translation*. Ithaca: Cornell UP.
Jusdanis, Gregory. 1991. *Belated Modernity and Aesthetic Culture*.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Nida, Eugene A. 1974.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Savoy, Theodore. 1968. *The Art of Translation*. London: Jonathan Cape.

- McCann, David. 1997. *Anthology of Modern Korean Poetry: Korean Edition with Oh Se-Young*. Seoul: Haenaem Press. 1989. *Selected Poems of So Chongju*. Columbia UP.
- O'Rourke, Kevin. 2001. *Mirrored Minds: A Thousand Years of Korean Verse*. Seoul: Eastward. 2001. *Shijo Rhythms*. Seoul: Eastward.
- Rutt, Richard. eds. 1988. *The Bamboo Grove*. Ann Arbor: U. of Michigan P.
- Yun Sondo. Trans. by Kevin O'Rourke. 2001. *The Fisherman's Calendar*. Seoul: Eastward Publication.
- Ueda, 1983. *Modern Japanese Poets and the Nature of Literature*, Stanford: Stanford UP.
- Vickers, Nancy J. 1993. "Lyric in the Video Decade", *Discourse* 16(1) fall, Indiana UP.

(3) 논문

- 김만수. 2001. 「지상과 천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각- 서벌 시조의 의미」, 김제현, 이지엽 외. 『한국 현대시조작가론』, 서울: 태학사.
- 김학성. 2006. 「시조의 3장 구조와 미학적 지향」. 『한국 시조시학』 창간호. 서울: 고요아침.
- 김효중. 2002. 「문학작품 번역과 세계관」 한국 비교문학회 간, 『비교문학』 제28집.
- 박진임. 2005. 「아시아계 미국 문학의 모델에서 다문화적 통찰의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문학, 그 시작에서 오늘까지」, 『대산 문화』, 2005 겨울호. 서울: 대산문화재단.
- _____. 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 연구』 제5권 1호.
- 유성호. 2005. 「문학 세계화, 시조에 길 있다」, 세계시조사랑협회 간, 『시조월드』 10호. 서울: 문학과 청년사.
- _____. 2006. 「현대 시조의 양식적 위상과 쟁점」, 『한국 시조 시학』 창간호. 서울: 고요아침.
- 임종찬, 2005. 「현대시조의 진로모색과 세계화문제 연구」, 『시조학논총』 23집.

[Abstract]

Translation and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Focusing on the Translation of Shijo

Park, Jinim

(Pyeong-taek University)

In this rapidly globalizing world,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in the field of literature cannot be over-emphasized. This paper examines diverse ways of translating Korean Shijo into English.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Shijo as an object of translation can be summarized in 3: its terseness in idea, its clear images, and concise poetic dictions it employs. In addition, the equal 4 rhythmic clusters in each three lines of Shijo poems makes Shijo one of the most attractive literary genres for translation.

This paper concludes, in terms of traditional Shijo, Rhythm is the most significant asset to consider in translation. Yet, when it comes to modern Shijo, the matter is more complex than the case of traditional Shijo. As Park Chul-hui puts it, modern Shijo is a hybrid entity of traditional poetic form and modern poetic qualities. Thus, depending on which of the two, the rhythm or the content, plays more dominant role in the particular poem to be translated, the translator should choose what to focus on in translation while sacrificing other elements.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classic shijo, modern shijo, translation of shijo, 4 feet, rhythm

박진임

평택대학교

jinimp@ptuniv.ac.kr

관심분야: 번역, 시조 번역

논문투고일: 2007년 4월 22일

심사완료일: 2007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7년 6월 13일